

# 與 당원명부 받은 1명 총선 당선 파문

### 예비후보 8명에 유출...이중 2명이 공천 받아 수사결과 예의주시...야당 "부정경선" 총공세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당원명부가 4·11 총선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 8명에게 넘어갔고 이 중 2명이 공천을 받아 1명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20일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 낙천·낙선자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이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부정 경선'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인사 2명 중 1명은 낙선했으나 나머지 1명은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다만, 당선된 국회의원은 내부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락공천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는 당원명부를 400만원을 받고 문자 발송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당의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

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진상조사대책팀장인 박민식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원명부 파일을 문자발송업체 대표에게 메일로 전했고 8명 안팎의 총선 예비후보등특약자에게도 USB나 메모일로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예비후보 대부분은 당원 명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총선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정 계파와 명부 유출 사이 연관성에 대해서 "친이·친박계 같은 계파적 공통점이나 지역적 공통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비박 주자 측에선 사건 당사 당 대표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선 경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권도 더 이상 새누리당 자체조사에 맡길 일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명부유출·경선부정·부정공천·특정계파 지원의혹 등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나온 모든 의혹의 단어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이야기할 때 선출절차에서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했다는 점을 돌이키면 유출된 당원명부가 경선과정 혹은 공천과정에 어떻게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어떻게 민주주의 훼손에 활용됐는지 반드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통합 대선주자들 본격 행보 DJ가신그림 동교동계 누굴 밀까?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DJ) 가신그림인 동교동계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권노갑 고문 등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가 DJ의 상징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 민주계 등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의 움직임이 민주통합당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의 향배가 경선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당내 대선 주자들은 앞다투어 'DJ 정신' 승계를 강조하면서 내심 동교동계의 측면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은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동교동계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교동계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 아직까지 '중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선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DJ'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교동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장성민 전 의원은 최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인사들이 특정 대선주자 캠프에 합류하면서 동교동계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과 관련, 현재까지의 동교동계의 입장은 '엄정 중립'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교동계가 경선에서의 '중립'을 내세우면서도 물밑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통해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20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광장에서 자신을 만나러온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소통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첫 지역 투어에 나선 문 고문은 22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순방한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 박영선 의원 광주서 첫 북콘서트

### 오늘 5·18기념문화센터...대선행보 시각도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1일 오후 7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생애 첫 북콘서트 '박영선의 사과나무'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측에서는 이번 북콘서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에서 첫 북콘

서트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대선행보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의 수정 요구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결국은 수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경우 지난 1월 전 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이유로 대선 후보 경선 출마가 불가능한 박 의원은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으며 박 의원 본인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

문이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박 의원이 최근 출간한 청춘 멘토링 에세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를 소개하며 독자와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물어 현장에서 전달, 박 의원이 직접 대답해주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또 이 북콘서트에는 '개념영어'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신경민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가수 김원준 씨와 시인 함민복 씨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본격 돌입

### 민주당 경선관리위 구성...내달 2일 경선

광주시의회가 다음달 6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0일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2일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장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표밭 다지기에서 내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이은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5명이 참여하는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 모임에서 오는 28~29일 후보 등록에 이어 다음달 2일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경선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끝

나면 정견발표와 정책토론회를 갖고 교차질문과 의원들의 질문을 취합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10명)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로 대상을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의장 선거 출마의 뜻을 굳힌 민주당 소속 내 다선의원 4명과 초선의원 2명이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서 첫 지역 투어 문재인 상임고문

## "광주·전남 지지받는 후보가 연말 정권교체 주인공 돼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0일 "세 번째 민주개혁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형태가 돼야 함은 물론 양 세력이 손잡고 힘을 모아야 할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통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첫 지역 투어에 나선 문 고문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 정권교체를 이루는 주

인공이 되기 위해서 광주·전남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가 그랬듯 세 번째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는 데도 물론 양 세력이 손잡고 힘을 모아야 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권 교체와 함께 요구되는 게 시대 교체인데, 이전 19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를 이끌어야 한다"며 "87년 체제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면 2013년 체제는 정치를

넓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야 하고 그 체제 또한 87년 체제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 세력과 참여정부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지점에도 자신이 있을 것"이라며 "시·도민들께서 저를 세 번째 민주개혁정부를 이끌 책임자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고문은 지역투어의 첫 행선지로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문 고문은 이날 양동시장과 국립 5·18 민주묘지·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찾았다. 21일엔 남평 문씨의 뿌리인 나주와 고시공부를 시작한 해남 대흥사 등을 방문하는 등 2박3일간의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우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입찰활동비 / 교재비 등 회비 550만원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